

과열우려에도 개미 줍줍... “고평가 주의” vs “중장기 성장”

2차전지株, 엇갈린 투자 행보

수출 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에 힘입어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에코프로 그룹을 비롯 전기차 배터리 업종 관련 주들이 증시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이들 업종 주식의 급등에는 ‘밧데리(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금양의 박순혁 홍보 이사가 유튜브에 출현하면서 2차전지 관련종목을 추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박 이사는 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LG화학·포스코퓨처엠·CNT·나노신소재·포스코홀딩스 등 8종목을 추천했는데 이들 종목 모두 크게 상승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에코프로는 지난해 말 기준 종가 10만3000원에서 지난달 11일 종가 76만9000원으로 7배가량 오르면서 최



주가가 과열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증권가 분석이 꾸준히 나오면서 2차전지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뉴시스

고가를 기록했다. 에코프로비엠도 지난해 말 종가 9만2100원에서 4월18일 종가 29만6000원으로 3배 이상 상승했다.

◆증권사 과열 경고를 담은 보고서 잇달아
고공행진하던 에코프로 그룹의 주가는 지난달 한풀 꺾였다. 증권사들이 2차

전지주에 대해 과열 경고를 담은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은 상황에서 에코프로의 경우 여러 악재까지 겹치면서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발간된 34건의 증권사 보고서 26개 종목에 대해 투자 의견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이 2차전지주들에 의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단기 고점 메시지를 대거 내놓은 격이다.

특히 하나증권은 “에코프로는 이차전지 섹터 내 기업 중 미래에 대한 준비가 가장 잘된 기업이지만, 현재 시가총액은 5년 후 예상 기업 가치를 넘어섰다”라며 매도 리포트를 냈다. 또한 증권사들은 에코프로그룹에 이어 POSCO홀딩스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율리 현상으로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판단과 함께 투자 의견을 하향했다.

개인 집중 매수 ‘에코프로그룹’
업계, 여전히 고평가 분석 내놔
여러 악재 겹치면서 주가 떨어져

◆개인투자자 2차전지 관련주 투자 집중 논란 심화

주가가 과열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증권가 분석이 꾸준히 나오면서 2차전지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미투자자들은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저가매수나 몰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이사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2차전지는 시세를 떠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며 조정을 받고 있는 2차전지 관련주를 몰타기 하거나 견디면 된다고 한 것이 이같은 매매수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이사는 방송에서 “과거 10년간 미국 증시를 주도한 Faangs(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를 예로 들며 “이들 주식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고평가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계속 오르면서 최근 10년 새 100~400배까지 올랐다”며 “지금 한국 2차 전지 주식들이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고, 3년 정도 보유한다면 어느 가격에 사더라도 마이너스를 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은 2차전지 관련주가 하락했던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박 이사가 추천했던 포스코홀딩스를 비

롯해 에코프로, LG화학, 에코프로비엠 등을 지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포스코홀딩스를 3조2868억원을 사들였으며, 에코프로를 9827억원 순매수했다. 이외에도 LG화학(3101억원), 에코프로비엠(2719억원) 등을 사들였다.

◆2차전지 관련주, 전문가들 전망도 엇갈려

업계에선 2차전지 관련 기업이 수출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아 업종이 단기 조정에도 그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로 인한 수혜로 2차전지 시장은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들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과 손잡고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들 3사들이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수주한 물량이 올해 말 1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차전지 관련주들도 중장기 물량을 걱정하지 않고 있다.

美 개별기업 악재 등 나와 外人 투자자들 손 빠기 시작 전문가들 전망도 의견 ‘분분’

주민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차전지 산업에 대해 “이제부터는 원가 하락이 속도와 생존을 결정할 전망”이라며 “분리막 조기 흑자전환을 시작으로 수익성은 매 분기 점진적 개선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에코프로비엠 주가의 핵심 동력은 수직계열화에 기반한 원가 경쟁력과 가시성 높은 생산능력(Capa) 성장성”이라며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생산능력(Capa) 목표는 2027년 71만톤이지만 2026년에 조기 달성하고, 2030년 100만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하이니켈 양극재 사업 노출도가 높아 2차전지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직 에코프로 그룹 등은 고평가 영역에 있어 2차전지 관련주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대중 세종대 교수는 “2차전지 관련주들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아직 고평가 영역에 있다”며 “특히 에코프로의 주가수익비율(PER)은 과도하게 높아 실적 대비 고평가된 주가가 해소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콘서트 1918 × 소란

CONCERT 1918

2023. 5. 20. (토) 20:00 경주문화관 1918 광장
구. 경주역 / 경주시 원화로 266

경주
문화관
1918

문의: 054.777.6305



/유토이미지